

보건의료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 김지원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의료보건분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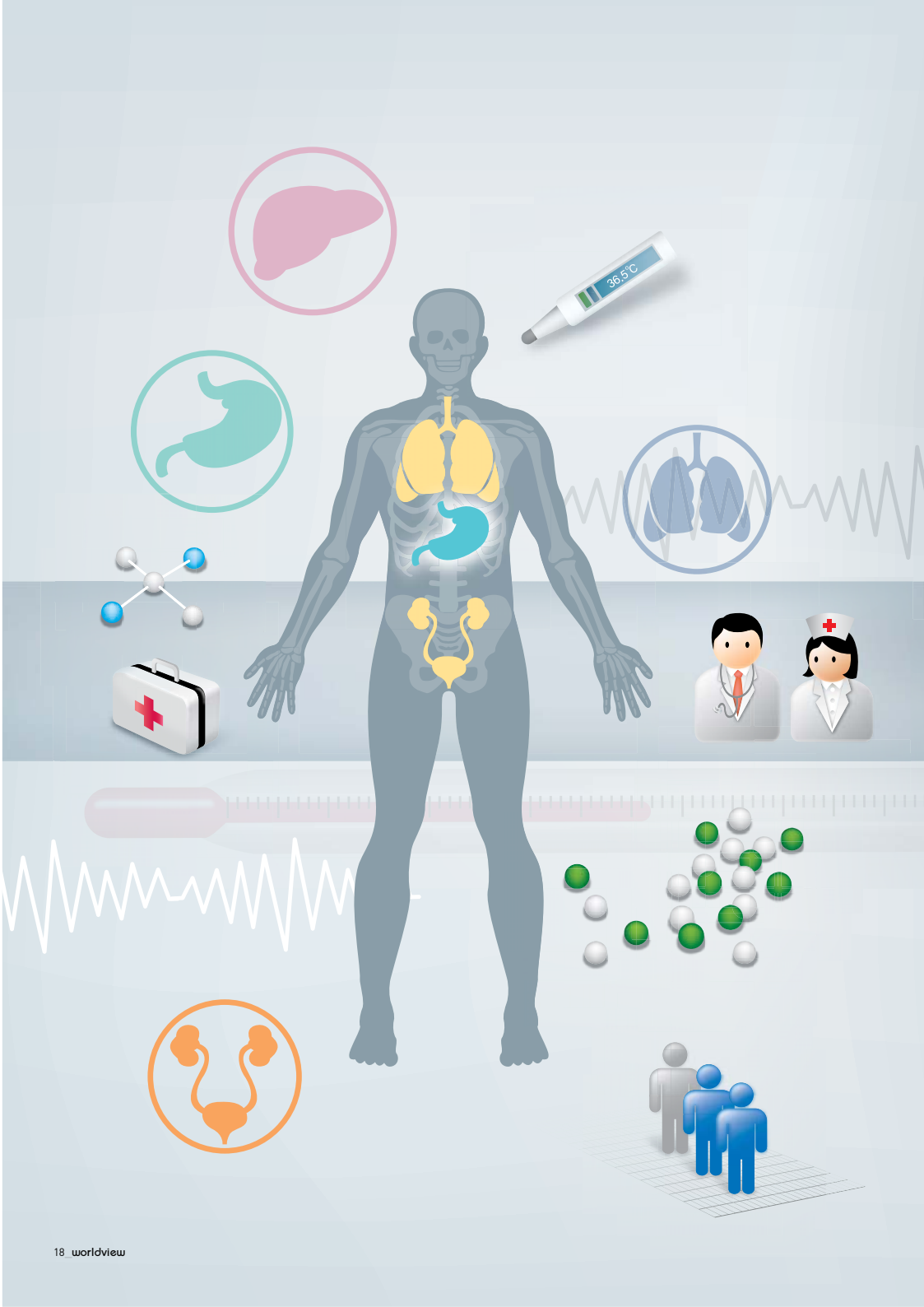
선생님도 교회 다니세요?

해부학 실습실에서의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다. 해부학 실습실을 배경으로 한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니 안심하길 바란다. 시신을 해부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가끔 해부학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그때 어떤 학생의 말이 아직도 내 귀에 생생하다. “선생님도 교회 다니세요? 아닌 줄 알았어요.”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성가대와 청년부 공동회장으로 섬기며 나름대로 열심이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학생이 내뱉은 한 마디는 꽤 큰 충격이었다. 학생들에게 비친 나의 모습은 전혀 신앙인 같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는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 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지만 해부학 강의실과 실습실에서는 전혀 크리스천의 향기를 내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와 학교에서의 삶이 각기 다른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다. 이미 15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나의 신앙과 학문을 되돌아 볼 때 여전히 같은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교육과 연구 분야의 선교사

보건의료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계신 것 같아 존경스럽고 부러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비교적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중요한 사역인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하고 후진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라 여겨진다. 후자를 보건의료분야 교육과 연구분야에서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다.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낯설고 험난한 선교지로 떠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술을 펼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과학주의와 합리주의에 빠져버린 보건의료분야에서 기독교 학문을 외치고 주장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더욱 치열하고 외로운 싸움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독교자들이 일반 학자들과 똑같이 학문의 수월성(秀越性: excellence)을 인정받고 연구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기독교 학문을 외치기란 공허하고 무모한 외침이기까지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학문을 한다는 것은 자기희생이며 내려놓음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선교사처럼, 나 중심의 학문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학문을 할 생각만 있다면 보건의료분야의 기독교 학문 연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틀 적용하기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보건의료분야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성경이 건강의 정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건강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건강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자연)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기본적 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창조의 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창조 당시의 인간을 온전한 건강 상태로 본다. 이는 하나님, 이웃, 나(영, 육)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건강 상태를 말한다.

타락의 틀은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창조세계의 왜곡으로 질병이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다. 죄로 인한 타락은 하나님, 이웃, 나(영, 육)와의 관계를 훼손시키고 건강의 왜곡을 초래하였다.

구속의 틀은 환자의 치료에 있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이웃, 나와의 온전한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틀 안에서 볼 때 보건의료분야 교육과 연구도 죄로 인해 타락했고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분야의 기독교학자는 과학적 자연주의, 진화론, 포스트모더니즘에 물들어 왜곡된 것들을 찾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보건의료분야 교육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치는 생물학 관련 과목 대부분이 진화론적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을 진화의 산물로 볼 것인가, 창조의 산물로 볼 것인가는 의학의 발달로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의료윤리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이다. 따라서 생물학 시간에 창조론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라면 진화론도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하여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학 발달에 크게 기여했지만 인간을 고장 난 기계같이 바라보는 생의학적 모델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즉, 나 자신(영, 육)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육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각각이 건강의 중요 요인임을 알고 전인적으로 환자를 바라보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나아가 온전한 건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의 관계(영, 육)를 다루는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목회자, 심리전문가, 지역사회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도 협력해야 한다.

Clærbaut는 「위태로운 신앙과 학문(Faith and Learning on the Edge)에서 “세례 받은 이교사상”을 이야기하며 기독교학에 의한 세속적 교육 현실을 꼬집는다. 지난 학기에 전공학문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 윤리’라는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이 시간을 통해 보건의료학문의 철학적 근거와 다양한 의료윤리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그들이 이미 과학적 자연주의, 진화론, 포스트모더니즘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역시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어떠한 보건의료인이 되어야 하는지보다 미래를 위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취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독교학자라면 부르심 대신 세상을 좇으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수업은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처럼 분야별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과목을 개발하여 각 분야의 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분별력을 갖춘 보건의료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기독교학자들은 현재와 미래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줄 후진을 양성하는 중요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달아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후학 교육은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것에서부터 미래 보건의료의 방향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보건의료 분야에 속한 각 학문을 연구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기독교학자로서 해부학과 재활학을 연구하는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해부학이나 생리학 등을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연구한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학자가 해부학을 연구한다고 결과가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미세구조 연구나 분자생물학 실험, 인체운동학 등을 통해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할 때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잠언 16:3)고 말씀한다. 신앙을 가진 해부학자와 생리학자라면 그 연구를 통해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는 학문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 학문이 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를 연구하는 것은 각 영역에 소명을 받은 학자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다만 기독교 세계관의 틀 안에서 자신의 연구 분야가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연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큰 그림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앙과학문> 18권 4호(p.107-108)을 참조.)

해부학이나 생리학 등 기초의학 연구는 창조 당시의 온전함에서 벗어난 상태이지만 여전히 인체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생명의 신비를 밝힘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병리학을 연구하는 기독교학자라면 질병이 인간의 원죄에서 기원했음을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온전한 인체가 죄로 인해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 창조세계 전반에 걸친 훼손이 병의 인자임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보건환경과 환경의학은 타락 이후의 자연 환경과 인위적, 사회적 환경이 인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건위생에 적합한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임상의학은 환자의 증상을 치료하기보다 포괄적이고 전인적으로 접근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사역에 참여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학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돌봄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환자의 영적회복을 돕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될 것이다.

절반의 성공이 아닌 온전한 성공을 위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보건의료 분야의 교육과 연구는 보건의료 선교사역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의료선교사의 헌신으로 시작되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한 한국의 의료현실을 바라볼 때,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지 못한 기독교 학문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절반의 성공인 셈이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실패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설대위 선교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운 병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종되었으며 의학은 남았으나 성스러운 임무는 사라져간다.”고 한탄하였을 것이다. 절반의 성공 아닌 실패의 원인은 바로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과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기독교 학문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되었다가 세속화된 국내외 대학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범아시아아프리카 대학협의회(PAUA)에 소속된 대학이나 의료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이 추진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대학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지원 현재 백석대학교 교수로 기독교보건회 총무이사과 기독교문연구회 의료보건분과장으로 섬기고 있다. 연세대학교 재활학과에서 공부하였고, 연구분야는 재활치료에 의한 형태학 및 분자생물학적 변화이며 최근 보건의료분야의 기독교학문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1997년 12월 성산 장기려 선생을 기념하여 설립되었다. 기독교 윤리 전통에 바탕을 두고 생명윤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의료계와 이 세상에 올바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윤리 기관이다. 최근 베리칩 논쟁이 가열되면서 이를 심층 분석하고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그중 정신의학적 관점과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베리칩 논쟁을 소개한다.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베리칩 논쟁

◎ **박준현**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베리칩 (Verichip)

베리칩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에 이식하는 마이크로 칩이다. 베리칩에는 개인 확인을 위해 16자리의 고유 숫자가 입력되어 있어 외부 스캐너에서 신호가 오면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 무선으로 관련정보를 읽고(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이를 관련 데이터가 저장된 네트워크 상에서 확인한다. 이 베리칩은 의료현장에서 투약, 처치, 시술 시 개인 확인과 관련된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고 치매환자나 의식을 잃은 환자, 정신지체자 등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신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 이에 2004년 미국 FDA에서는 베리칩을 제2군의 의료기기(Health Information Microtransponder System)로 허가하였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베리칩의 사용은 사회적, 윤리적, 신학적 측면에서 많은 논쟁이 진행 중이다. 본 글에서는 베리칩과 관련된 논란들을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